

典經에 나타난 神人調化

-成事在人을 中心으로-

高南植*

目次

I. 緒言	1. 三界와 神道
II. 調化와 陰陽	2. 人尊과 成事在人
III. 造化와 成事在人	IV. 結語

I. 緒言

神과 人間은 종교의 근본적이면서도 본질적인 논의의 대상이다. 인류종교의 역사는 신과의 관계속에서 점철되어온 시간들이었으며, 인간들은 신을 경배하면서 종교의 장을 열어 온 것이 사실이다.

오늘날 인간들이 최첨단 과학을 통해 신의 영역을 도전하고 있지만 신의 세계는 가까이 있는 듯 하면서도 요원한 未知의 세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신, 인의 관계가 대순사상에서는 신과 인이 서로 상보적 연관성속에 相生하고 있으며 신이 현실의 인간의 삶과 밀접히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 대순사상에서는 신과 인의 상보적 차원을 넘어, 역사속에서 신의 영역하에 존재의 장을 개척해왔던 인간이 이제 後天이라는 새로운 시운

* 대전대 대순종학과 교수

을 맞이하며 신과의 調化속에 人尊과 成事在人이라는 존귀성과 우월성을 갖는 삼계의 한 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이점에 입각 本考는 神人調化를 고찰하는데 있어 調化를 調和와 造化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調化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陰陽과 解冤을 살펴본 후, 人尊의 차원에서 道通에 따른 成事在人을 중심으로 신과인의 造化를 알아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I. 調化와 陰陽

調化에서 調와 化 각각의 의미를 살펴보면 調는 「고르게 한다」는 뜻으로 調를 통해 양자사이의 관계가 和해지는 調和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¹⁾ 調和는 「調」에서 均등, 평등²⁾ 「和」에서 화합, 화평의 뜻을 담고 있다.³⁾ 均등과 평등은 다수의 대상을 和의 세계로 이끄는 근본이며 원을 해소한 상황속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⁴⁾

化는 「된다」는 뜻으로 이것은 일을 의미로 만들거나 수행해 무엇을 되게 하는 뜻으로 『전경』의 여러 부분에서 등장하는 造化라는 단어로 요약된다.

1) 후천에는 벼슬하는 자는 和權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율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예시 81절)

2)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른 노력이 전체된 것으로 무조건적인 평등이 아님을 다음에서 볼 수 있다.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교법 3장 24절) 후천에는 계급이 많지 아니하나 두 계급이 있으리라. 그러나 식록은 고르리니 만일 급이 낮고 먹기까지 고르지 못하면 어찌 원통하지 않으리오.(교법 2장 58절)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교운 1장 30절)

3) 후천에는 만국이 和平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예시 80절)

4)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가 해원공사임을 다음과 같이 전경은 적고 있다.

상제께서 七월에 “예로부터 쌓인 원을 풀고 원에 인해서 생긴 모든 불상사 없애고 영원한 평화를 이룩하는 공사를 행하시니라. 머리를 긁으면 몸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인류의 기록에 시작이고 冤의 역사의 첫 장인 堯의 아들 丹朱의 원을 풀면 그로부터 수천년 쌓인 원의 마디와 고가 풀리리라. 단주가 불초하다 하여 요가 舜에게 두 딸을 주고 천하를 전하니 단주는 원을 품고 마침내 순을 蒼梧에서 崩케 하고 두 왕비를 瀟湘江에 빠져 죽게 하였도다. 이로부터 원의 뿌리가 세상에 박히고 세대의 추이에 따라 원의 종자가 퍼지고 퍼져서 이제는 천지에 가득 차서 인간이 파멸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인간을 파멸에서 건지려면 해원공사를 행하여야 되느니라”고 하셨도다.(공사 3장 4절)

이상의 調와 化의 내용을 종합하면 調化는 대순사상에서 調和와 造化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지의 사실로 대순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 주는 것이 宗旨인데 종지는 음양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신인조화 또한 음양론속에서 설명되어진다.

陰陽合德은 종지의 첫째 대목으로 형이상화적으로나 형이하학적으로 종지의 내용을 실제적으로 가능케하는 근본이며 모든 종지의 밑바탕이 되는 포괄적 원리이다.

神人調化에서 신은 음, 인은 양이 되어 調和롭게 일을 이루는 것으로 이것은 음양의 調化를 말한 것이다.

解冤相生에서 해원을 한다는 것은 음의 원을 풀어 음양이 상극에서 벗어나 正陰과 正陽이 되어 合德함으로써 인류가 소망하는 이상세계의 초석을 놓아 음양이 서로 相生한다는 것이다.

道通眞境은 음·양이 서로 정음·정양으로 상생속에 調化의 원리로 합덕돼 한 세계를 이룬 것으로 後天仙境이다.陰陽調化는 음양을 균등성하에 合의 원리로 결합시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역동성을 갖고 현실화 실제화시키는 원리이다.⁵⁾

또한 신과 인의 調化가 음양과 관련이 있음을 『陰陽經』에서 찾을 수 있다.

천지의 일은 모두 이 음양가운데 성공이 있고 만물의 이치도 모두 이 음양가운데 이루어진다. 천지는 음양으로써 변화를 이루고 신인도 음양으로써 조화를 성공한다.(天地之事 皆是陰陽中有成 萬物之理 皆是陰陽中有遂 天地以陰陽成變化 神人以陰陽成造化)⁶⁾

위 내용은 천지만물이 음양으로 성공하며 천지내에서 신과 인간도 모두 음양으로 造化를 이룸을 보여준다.

나아가 양인 하늘과 음인 땅, 양인 인간과 음인 신의 관계를 『음양경』은

5) 拙稿 「典經에 나타난 陰陽合德의 原理」, 『大巡思想論叢 제 2집』, 大巡思想學術院, 창문사, 1997, 397쪽

이하 본 논문의 「調化와 陰陽」 부분은 『전경에 나타난 음양합덕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였음을 밝혀 둔다.

6) 교운 2장 42절 : 『陰陽經』

하늘은 땅의 감화가 없으면 하늘 아래로 펼수 없고 땅은 하늘의 공력이 없으면 땅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신은 사람이 없으면 후에 의탁할 곳이 없고 사람은 신이 없다면 앞에서 인도해 의지할 곳이 없어진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天無地化 無布於其下 地無天功 無成於其上 天地和而萬物暢 天地安而萬象具 神無人 後無托而所依 人無神 前無導而所依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俟人 人俟神明) (교운 2장 42절 『陰陽經』)

라고 하여 음양의 어느 한쪽이 없이는 천지간의 모든 것들이 성공도 없고 귀의할 곳도 없음을 말하고 있다. 즉 우주 만상의 원리가 음양관계속에서 존재성을 갖게 되며 신과 인의 조화도 음양의 이치하에서 있게됨을 보여준다.

이에따라 천지인 삼계가 용사에 있어 造化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乾과 坤의 음양원리가 된다.

天이 쓰는 것과 地가 쓰는 것 그리고 人間이 사용하는 것이 綱紀를 조율하고 다스리며 건곤을 통제하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 造化수단이라 한다.(天用地用人用之 調理綱紀 統制乾坤 此之謂造化手段也)(제생 43절)

위에서 天地가 쓰는 것, 人이 사용하는 것들이 이치를 조율해 기틀을 세워 음양인 乾坤을 통제하는 데 있다는 내용은 乾坤이 음양이므로 음양이 造化의 수단이 됨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대순사상에서 天地人의三界는 陰陽의 원리하에 운행되고 있으며 이 음양원리는 調化작용과 밀접한 관련하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調化의 원리는 선천문제의 해결이 선행될 때 이루어진다. 선천문제는 음양관계와 관련이 있어 결국 음양 상극으로 야기된 冤과 정신문명과 물질문명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 신계와 인계의 常道가 무너짐으로써 삼계가 겁액에 빠져 나타나게 되었다.⁸⁾

7) 이것은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를 잃고 갖가지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공사 1장 3절)라는 부분에서 원한에 대한 문제와 관련된다.

8) 상제께서 어느 날 김 형렬에게 가라사대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험사리 개

대순사상은 선천문제를 해결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종지)을 통해 정신개벽(無自欺), 인간개조(地上神仙 實現), 세계개벽(地上天國建設)을 목적에 두고 있다. 神人調化는 종지의 하나로 목적을 이루기위한 원리이며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신인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원의 해소와 음양의 올바른(正) 관계가 정립되어야함을 알수 있다. 즉 해원을 통해 음양관계의 양자가 정음정양화 되어 調和해야 되며 이러한 토대위에서 신과 인의 造化는 정음정양화된 음양을 調理하고 統制해 진행되는 것이다.

그러면 調和를 이루기 위한 해원에 대해 살펴본다.

선천에서는 음양의 불균등, 불평등에서 소외계층들이 차별화되어 원과 척이 맞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에 원이 없이 질서체계가 정립될 때 調和가 가능하다.

따라서 상제 天地公事의 주요 목적도 도수를 굳건히 해 신과 인의 調化를 구현하는 것이 중심이며 이를 위해서는 원의 해소가 필요하고 결국 해원을 통해 양자 혹은 다자 관계가 균등과 화평을 이루는 것이다.

즉 천지공사속에서 해원공사를 통해 원과 척을 해소함으로써 정음정양의 균등한 음양관계가 확립되어 調和를 이룰수 있게 된다.

먼저 神界의 調和는 명부착란으로 인한 원의 해소로 시작되며 명부 神들의 조정은 人界문제 해소의 근원이다.⁹⁾

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끝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겹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 최 제우에게 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甲子년에 드디어 천명과 神敎를 거두고 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고 말씀하셨도다.

9)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朝鮮冥府를 全 明淑으로, 淸國冥府를 金 一夫로, 日本冥府를 崔 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잡

또한 神과 관련이 있는 天과 地의 관계에서 地는 음이 되고 음인 地는 선 천시대에 양인 天에 대해 상대적으로 비하된 상태에 있었으나 이제 地의 위상이 회복된다.¹⁰⁾

人界의 調和를 이루는 해원공사는 불평등 불균형하에 존재해 왔던 계층들을 해원케하는 공사를 통해 처결된다.¹¹⁾男과 女로 볼 때 음이 되는 여인의 공덕을 세우는 공사를 봄으로써 남존여비라는 억음존양의 논리가 무너진다.¹²⁾또한 사회적 신분적으로 억눌려 원과 척을 갖고 있던 천인계층에 대한 해원 공사도 이루어졌다.¹³⁾이와함께 조선조 말기 관직의 고하에서 나타나는 신분계층간의 대립속에서 하급 관직에 있는 계층원들의 원도 풀린다.¹⁴⁾

이처럼 음양관계로 볼 때 양적요소, 양적계층과 대응돼 원을 갖고 있는 음적요소, 음적계층을 해원시켜야 한다. 이를통해 정음과 정양이 이루어지고 神界와 人界의 원이 해소됨으로써 相生속에 調和가 구현돼 神人調化의 기틀이 이룩되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造化와 成事在人을 다루기에 앞서 造化와 음양관계를 간략히 언급하기로 한다.

앞에서 정음정양은 원을 갖고있는 음적요소들의 해원을 통해 음양의 평등

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장 7절)

- 10) 『선천에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地德이 큰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이 일체로 만들어야 하느니라.』(교법 1장 62절)
- 11)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 12)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티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고 태인읍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공사 1장 32절) 『후천에는 그 닦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교법 1장 68절)
- 13)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짚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 그러므로 양반의 인습을 속히 버리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척이 풀려 빨리 좋은 시대가 오리라.』(교법 1장 9절)
- 14) 『상제께서 종도와 함께 계실 때 김 광찬에게 「네가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아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촌 양반으로 아나이다」고 대답하니라. 다시 상제께서 물으시기를 「촌 양반은 너를 어떠한 사람이라 할 것이냐,」 광찬이 여쭙니라. 「읍내 아전이라 할 것이외다.」 그의 말을 들으시고 상제께서 가라사대 「촌 양반은 읍내의 아전을 아전놈이라 하고 아전은 촌 양반을 촌 양반놈이라 하나니 나와 너가 서로 화해하면 천하가 다 해원하리라,」 하셨도다.』(공사 1장 25절)

성을 이루어 후천세계의 질서를 조정하는 것이며 음양상생은 상극으로 인해 야기된 문제를 없애기 위한 우주의 지배원리라 하였다.

그러나 음양이 正해진 상태나 相生관계만으로 이상세계인 후천선경의 건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일을 진행하는 신과 인의 造化가 필요한 것이다.

정음정양, 음양상생이 調和의 토대로 선천의 문제점을 조정하는 단계라면 造化의 원리는 선천을 뛰어넘어 후천선경을 만들어 가는 구체화된 음양합덕의 원리라 할 수 있다.

즉 調和가 음양사이에 원을 풀어 없애 정음과 정양을 만든 후 음양을 상생원리속에 평등 존중 화합케하는 것이라면 造化는 음양을 균등성하에 화합의 원리로 결합시켜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이치를 역동성을 갖고 현실화 실제화시키는 원리인 것이다.

『전경』은 신계와 인계에 대해 造化로써 天地公事를 처결해 후천선경을 만든다고 밝히고 있다.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하노라.(공사 1장 3절)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신도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예시 9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예시 81절)

造化는 神과 人의 관계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으로 三界내에서 신과 인이 맡은 바 영역에서의 일을 수행해 우주를 운행시키는 것이다.

음양이 調化의 원리를 따라 합덕돼 실제적 가치성을 이룬 것이 원시반본된 세계이며, 삼계의 두 氣로서 근원의 원리가 되는 음과 양이 調和하에 造化를 해나갈 때 구현된다.

원시반본에서 특히 신과 인간의 관계를 나타낸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교법 3장 42절)

에서 혈통줄이 바로 잡힌다는 것은 조상(神)과 자손(人)이 상생으로 調和롭게 음양합덕이 돼 조상은 천상, 자손은 지상에서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각각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음양관계로 볼 때 神과 人도 음양이나 삼계내에서 某事, 成事의 주체로 차별화, 특성화되어 존재해 우주적으로 造化작용을 이루는 면이 일반적인 음양관계나 陰陽調化와 구별된다.

神道の 범주안에서 신과 인은 造化를 통해 삼계를 움직이는 본질적 활동의 본체라는 점이 일반 음양과 다르다.

이점은 음과 양이 서로 합쳐진 후(陰陽相合)¹⁵⁾ 음양인 神과 人이 調和를 이뤄 화합으로 서로 합덕돼 상생관계가 됨으로써 天地의 道와 神人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룬다는 내용에서 찾을 수 있다.

신과 인간이 화합해서 만사를 이루고 신과 인간이 합쳐져 모든 공을 이룬다. 신명은 인간을 세우고 인간은 신명을 세운다. 음양이 서로 합쳐지고 신인이 서로 통한후에 天道가 이루어지고 地道가 이루어진다. 神事が 성공하고 人事가 성공한다. 人事가 성공하고 神事が 성공한다. (神人和而萬事成 神人合而百工成 神明俟人 人俟神明 陰陽相合 神人相通然後 天道成而地道成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 (교운 2장 42절)

神과 人이 각각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며 화합을 할 때 만사백공을 이루고 음양이 합쳐지듯 신인이 서로 통해야 天·地의 道와 神·人의 事が 성공됨을 알 수 있다. 음양조화의 결과를 天과 地 그리고 神과 人에 비추어 강조한 것으로 음양합덕의 원리하에 신과 인의 造化가 진행돼 궁극적 목표인 후천선경이 건설됨을 보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삼계는 神과 人이 바르게(正) 상생과 평등속에 화합해 造化를

15) 대순사상에서의 음양상합은 해원을 통한 정음정양, 음양상생하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루어 실제화된 후천선경을 이루는 것이다.

Ⅲ. 造化와 成事在人

造化를 神과 人의 관계에서 살펴본다. 앞장에서 神과 人이 造化를 통해 삼계내에서 각각의 일을 수행함을 보았다. 본장에서는 上帝의 대순하신 진리와 천지공사에 따른 새로운 時運속에서 神과 人이 어떤 관계속에서 造化를 이루어 가는가를 알아보기로 한다.

1. 三界와 神道

三界은 天界 地界 人界로 구분되며¹⁶⁾ 宇宙를 지칭하는 의미이다. 천, 지, 인 삼계는 신계 인계로 대별해 생각할 수 있다.¹⁷⁾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 (교법 2장 36절)

16) 대순사상에서 三界라는 용어는 천계 지계 인계를 총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삼계공사는 곧 천, 지, 인의 삼계를 개벽함이요(예시 5절) 삼계가 개벽되지 아니함은 선천에서 원한이 세상에 쌓이고 따라서 天, 地, 人 삼계가 서로 통하지 못하여(예시 8절) 삼계를 개벽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중략)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공사 1장 2절) 상제께서 三界의 大權을 수시수의로 행하셨느니라. 그밖에 풍우, 상설, 뇌전을 일으키는 천계대권을 행하실 때나(공사 1장 4절) 학교를 널리 세워 사람을 가르침은 장차 천하를 크게 문명화하여 삼계의 역사에 붙여 神人의 해원을 풀려는 것이나, (교운 1장 17절) 西洋 대법국 천계탑에 내려오셔서 삼계를 둘러보고 천하를 대순하시다가 동토에 그쳐 모악산 금산사 미륵금상에 임하여(예시 1절) 판박에서 새로운 법으로써 삼계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니라(예시 4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예시 10절)

17) 신계는 천계, 지계와 연관돼 인계와 긴밀한 관계속에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또한 『典經』에 「天地人神 有巢文(反書體)」(교운 1장 66절, 현무경) 이라 한 것은 천, 지, 인, 신계의 네가지 영역을 보여준다. 이하 본문에서 천, 지, 인, 신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천지가 사람을 낳아서 쓴다 (天地 生人用人) (교법 3장 47절)

위에서 하늘(천)이 인을 태어나게 하며 그 인은 신계 선령신들의 60년이라는 긴 세월의 공과 인(자손)이 연계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천계와 인계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또 천계와 지계가 각각 신계와 유기적 관계임이 지계 지하신의 천상 묘법 전래로 나타난다.

서양인 이마두(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접맥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교운 1장 9절)

또한 神界는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으니 비록 풀잎 하나라도 신이 떠나면 마를 것이며 흙 바른벽이라도 신이 옮겨가면 무너지나니라.(교법 3장 2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교법 2장 17절)

전쟁사를 읽지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

에서 「천지에 신명이 가득차 있다,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는 내용처럼 천,지,인 삼계와

범신적이며 다신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존재한다.

따라서 신계는 천계와 지계 그리고 인계와의 총체적 관련하에 그 모습의 일면을 투영해 볼 수 있다.

먼저 천계에 연관된 신계를 보면 玉京, 玉樞, 冥府등의 기구가 존재하고¹⁸⁾ 이곳에서 神政과 神事が 이루어짐을 알수 있다.¹⁹⁾

지계의 신들은 어떤 지역²⁰⁾이나 인간생활의 장속에서 物象的이나 氣的으로²¹⁾ 人界와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삼계내에 존재하는 신들은 상제의 천지공사를 따라 조정돼 冥府, 天地, 日月, 星辰등 정해진 영역에서 자신의 일을 주장한다.

그 예로 조선명부는 전명숙,청국명부는 김일부,일본명부는 최수운 그리고

18) 天上玉京(교운 2장 42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예시 10절) 玉京玉樞(교운 2장 42절) 四十八將을 늘어세우고 옥추문을 열 때에는 정신을 차리기 어려우리라.(예시 78절) 玉樞統符(符圖中) (교운 1장 66절, 현무경 25면)

19) 상제께서 “敎中이나 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행록 3장 8절)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天上公廷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교운 1장 33절) 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 (교운 2장 42절, 음양경)

20) “이제 혼란한 세상을 바르려면 皇極神을 옮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셨도다. “황극신은 淸國光緒帝에게 응기하여 있다.” 하시며 “황극신이 이 땅으로 옮겨 오게 될 인연은 宋尤庵이 萬東廟를 세움으로부터 시작되었느니라.” 하시고 (공사 3장 22절) 天下自己神 古阜運回 天下陰陽神 全州運回 天下道通神 井邑運回 天下是非神 淳昌運回(공사 3장 39절)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교운 1장 9절) 내가 부안지방 신명을 불러도 응하지 않으므로 사정을 알고자 부득히 그 지방에 가서 보니 원일이 공부할 때에 그 地方神들이 호위하여 떠나지 못하였던 까닭이니라.(교운 1장 63절)

21) 左旋 四三八 天地魍魎主張
九五一 日月寵王主張
二七六 星辰七星主張(교운 1장 44절)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和氣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교법 1장 42절) 萬物資生 羞耻放蕩 神道統 春之氣 放也 夏之氣 蕩也 秋之氣 神也 統以氣之主張者也 知心大道術(교운 1장 44절)

천지는 魍魎, 일월은 竈王, 성신은 七星이 주장하게 된다.²²⁾

한편 인계와 신계의 관계는 음양의 대대성하에 삼계에 공존하는데²³⁾ 인계와 신계의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계와 신계의 관련성은

사람들 끼리의 싸움은 천상에서 선령신들 사이의 싸움을 일으키나니 천상 싸움이 끝난 뒤에 인간 싸움이 결정되나니라.(교법 1장 54절)

어느날 중도들이 상제를 뵈옵고 “상제의 권능으로 어찌 장 효순의 난을 당하였나이까”고 물으니라. 상제께서 “敎中이나 家中에 분쟁이 일어나면 神政이 문란하여지나니 그것을 그대로 두면 세상에 큰 재앙이 이르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기운을 받아서 재앙을 해소하였노라”고 이르셨도다.(행록 3장 8절)

와 같이 나타난다.

이것은 인계 일이 신계에까지 영향을 주고²⁴⁾ 인계 일의 결과는 신계에서 결정된 내용을 따라 인계에 구현됨을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 신계의 인계에 대한 영향은 신이 인의 倫理道德의인 면을 판단해 심판하기도 한다.

신명은 탐내어 부당한 자리에 앉거나 일들을 편벽되게 처사하는 자들의 덜미를 쳐서 물리치나니라. 자리를 탐내지 말며 편벽된 처사를 삼가하고 덕을 닦기를 힘쓰고 마음을 올바르게 가지라. 신명들이 자리를 정하여 서

22)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朝鮮冥府를 全 明淑으로, 淸國冥府를 金 一夫로, 日本冥府를 崔 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고 말씀을 잊고 글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장 7절)

左旋 四三八 天地魍魎主張
九五一 日月竈王主張
二七六 星辰七星主張 (교운 1장 44절)

23) 神人以陰陽成造化 (교운 2장 42절, 음양경)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陰起事而陽明 陽起事而陰匿 要須先察陰陽 陰陽則水火而已 陰殺陽生 陽殺陰生 生殺之道 在於陰陽 人可用陰陽然後 方可謂人生也 人爲陽 神爲陰 陰陽相合然後 有變化之道也 (계생 43절)

24) 인망을 얻어야 신망에 오르고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교법 1장 25절) 신은 사람이 먹는 대로 흠향하니라.(교법 1장 49절) 전쟁사를 읽지 마라 전승자의 신은 춤을 추되 패전자의 신은 이를 가나니 이것은 도를 닦는 사람의 주문 읽는 소리에 神應되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23절)

로 받들어 앉히리라.(교법 1장 29절)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갈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절)

상제께서 교훈하시기를 “인간은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 분통이 터져 큰 병에 걸리느니라. 이제 먼저 난법을 세우고 그후에 진법을 내리나니 모든 일을 풀어 각자의 자유 의사에 맡기노니 범사에 마음을 바로하라. 사곡한 것은 모든 죄의 근본이요. 진실은 만복의 근원이 되니라. 이제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에게 임하여 마음에 먹줄을 겨누게 하고 사정의 감정을 번갯불에 붙이리라. 마음을 바로 잡지 못하고 사곡을 행하는 자는 지기가 내릴 때에 심장이 터지고 뼈마디가 통겨지리라. 운수야 좋건만 목을 넘어가기가 어려우리라.”(교법 3장 24절)

또한 신은 은혜를 갚거나²⁵⁾ 아래 구절에서 나타나듯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 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지어다.(교법 2장 14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가르치시기를 “하늘이 사람을 낼 때에 헤아릴 수 없는 공력을 들이나니라. 그러므로 모든 선령신들은 육십년 동안 공에 공을 쌓아 쓸만한 자손 하나를 타 내되 그렇게 공을 드려도 자손 하나를 얻지 못하는 선령신들도 많으니라. 이 같이 공을 드려 어렵게 태어난 것을 생각할 때 꿈같은 한 세상을 어찌 잠시인들 헛되게 보내리오” 하셨도다.(교법 2장 36절)

신계 신들이 인계에 작용하여 그 소망을 이루려는 면도 있다.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종도들 앞에서 하신 적이 있느니라. “내가 출세할 때에는 하루 저녁에 珠樓 寶閣 십만간을 지어 각자가 닦은 공덕에

25) 조선과 같이 신명을 잘 대접하는 곳이 이 세상에 없도다. 신명들이 그 은혜를 갚고자 제각기 소원에 따라 부족함 없이 받들어 줄 것이므로 도인들은 천하사에 만 아무 꺼리낌 없이 종사하게 되리라.(교법 3장 22절) “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며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 姜太公이 부국강병의 술법을 천하에 내어놓아 그 덕으로 대업을 이룬 자가 있되 그 공덕을 앙모하나 보답하지 않고 다만 디딜방아에 庚申年庚申月庚申日姜太公造作이라 써 붙일 뿐이니 어찌 도리에 합당하리요. 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예시 22절)

따라 앉을 자리에 앉혀서 신명으로 하여금 각자의 옷과 밥을 마련하게 하리라. 못 앉을 자리에 앉은 자는 신명들이 그 목을 끌어내리라.”(교법 3장 44절)

위에서 상대적으로 人의 복록과 소망이 上帝의 판단하에²⁶⁾ 신계의 관련된 신과의 관계속에 긴밀히 연관돼 있음을 또한 알 수 있다.²⁷⁾

이처럼 인계와 신계는 「신사가 이루어지고 인사가 이루어진다. 인사가 이루어지고 신사가 이루어진다.(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는 내용처럼 상호 유기적이고도 긴밀한 관련을 맺고 삼계속에 주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神界와 人界의 관계에서 중요한 점은 천지인 삼계의 일들이 모두 神道에 근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 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神道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예시 73절)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神道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三界公事이니라(공사 1장 3절)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딴 것이라” 이르시고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神道の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26) 인간의 일심을 따라 상제께서 복록을 결정함이 나타난다.

내가 비록 서측에 있을지라도 일심을 가지는 자에게 빠짐 없이 찾으리라.(교법 2장 13절)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교법 2장 4절)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말라.(교법 2장 5절)

27)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각 기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교운 1장 33절)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집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교운 1장 9절)

위의 내용은 음에 속한 神界의 神道를 근본으로 萬事가 진행되고²⁸⁾ 일(事)이 상제의 삼계대권에 의하여 用事되며²⁹⁾ 神道는 玄妙不則한 대소의 일을 모두 이루는 것으로 無爲로 造化됨을 알 수 있다.³⁰⁾

그러면 삼계와 神道の 관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위 예문에서 선천의 천지인 삼계 질서 혼란이 신도의 권위추락에 있고 (위 교운 1장 9절) 문제해결의 단서가 신도에 있음이 나타난다. (공사 1장 3절) 더 나아가

상제께서 오셔서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에 쌓인 원한을 풀고 상생의 도를 세워 후천 선경을 열어놓으시고 神道를 풀어 조화하여 도수를 굳건히 정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 후에 인사를 조화 하니 만민이 상제를 하느님으로 추앙하는 바가 되었도다.(예시 9절)

의 내용처럼 후천선경 건설 후에도 신도에 의해 삼계의 일이 造化되고 도수와 운수가 완벽히 짜여져³¹⁾ 삼계가 운영됨을 알 수 있다.

28)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제생 43절) 김 광찬과 신 원일이 상제를 모시고 계시던 정미년 정월 어느날 상제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하노라”(교운 1장 19절)

29) 상제께서 “나는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고 사람에게도 신명으로 하여금 가슴 속에 드러나게하여 다 고쳐 쓰리라. 그러므로 나는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어리석은 자를 쓰리니 이는 비록 초목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게되는 연고이니라” 말씀하셨도다.(교법 3장 1절) 이제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쳐 물새 틈없이 도수를 짜 놓았으니 제한 도에 돌아닿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또 신명으로 하여금 사람의 뱃속에 출입케 하여 그 체질과 성격을 고쳐 쓰리니 이는 비록 말뚝이라도 기운을 붙이면 쓰임이 되는 연고이니라.(교법 3장 4절) 경석으로 하여금 양지에 “全羅道 古阜郡 優德面 客望里 姜一淳 湖南西神司命”이라 쓰게 하고 그것을 불사르게 하시니라. 이 때에 신 원일이 상제께 “천하를 속히 평정하시기 바라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내가 천하사를 도모하고자 지금 떠나려하노라”하셨도다.(행록 5장 33절)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예시 30절)

30) 無爲의 일례로 生長斂藏이 있다.

나는 生長斂藏의 四義를 쓰나니 이것이 곧 無爲而化니라.(교법 3장 27절)

31) 人의 운수와 운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이제 너희들에게 다 각기 운수를 정하였노니 잘 받아 누릴지이다. 만일 받지 못

또 神道를 근본으로 仙·佛·儒法의 정수³²⁾와 세계 각 지역 민족문화를 모두 통일해 천지공사가 이루어진다.³³⁾

한편 神道에 따르는 신계 기구가 인계 일에까지 주요 작용을 함도 보인다.

상제께서 가라사대 “명부의 착란에 따라 온 세상이 착란하였으니 명부 공사가 종결되면 온 세상 일이 해결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뒤부터 상제께서 날마다 종이에 글을 쓰시고는 그것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장 5절)

상제께서 삼계가 착란하는 까닭은 명부의 착란에 있으므로 명부에서의 상극도수를 뜯어고치셨도다. 이로써 비겁에 쌓인 신명과 창생이 서로 상생하게 되었으니 대세가 돌려 잡히리라.(예시 10절)

상제께서 김 형렬의 집에서 그의 시종을 받아 명부공사를 행하시니라. 상제께서 형렬에게 “朝鮮冥府를 全明淑으로, 淸國冥府를 金一夫로, 日本冥府를 崔水雲으로 하여금 주장하게 하노라”고 말씀하시고 곧 “하룻밤 사이에 대세가 돌려잡히리라”고 말씀을 잇고 글을 불사르셨도다.(공사 1장 7절)

한자가 있으면 그것은 성심이 없는 까닭이니라(교법 2장 37절)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운수는 열려도 자신이 감당치 못하면 본곳으로 되돌아 가기도 하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기도 하리라. 잘 믿을 지어다”고 경고하셨도다.(교법 2장 38절) 萬事分已定 浮生空自忙(교법 3장 47절)

32) 지나간 임진란을 崔風憲이 말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震默이 당하였으면 석달이 넘지 않고, 宋龜峰이 말았으면 여덟달에 평안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며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져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73절) 선천에서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여 한가지 道만을 따로 써서 난국을 능히 바로 잡을 수 있었으나 후천에서는 판이 넓고 일이 복잡하므로 모든 도법을 습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바로 잡지 못하리라.(예시 13절)

33) 상제께서 모든 도통신과 문명신을 거느리고 각 민족들 사이에 나타난 여러 갈래 文化의 精髓를 뽑아 통일하시고 물 썰 틈 없이 도수를 짜 놓으시니라.(예시 12절) 세계의 모든 족속들은 각기 자기들의 생활 경험의 傳承에 따라 특수한 사상을 토대로 색 다른 문화를 이룩하였으되 그것을 발휘하게 되자 마침내 큰 시비가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상제께서 이제 민족들의 제각기 文化의 정수를 걷어 후천에 이룩할 文明의 기초를 정하셨도다.(교법 3장 23절) 이제 동서양이 교류되어 여러가지 主義가 일고 허다한 단체가 생기나니 이것은 성숙된 가을에 오곡을 거둬 결속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교법 3장 38절)

한편 西敎에 대해서는 神道와 관련 다음의 내용이 있다.

서교는 신명의 박대가 심하니 감히 성공하지 못하리라.(교법 1장 66절)

새로 조정된 명부는 神道에 따르는 하나의 기구이고 인계의 질서를 바로 잡는 신계 부서이며, 신계 각국 명부 主張者는 과거 인계에 있었던 존재로 인계 담당 나라의 명부를 맡아 삼계에 錯亂이 없는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다음 내용도 삼계 전체적인 면에서 신이 주재하고 있는 천계와 지계의 질서 즉 신도의 영향을 인계가 긴밀히 받아 공존함을 보여준다.

桀은 그때를 惡하게 했고 湯은 그때를 善하게 했다.天道가 桀에게 惡을 가르쳤고 天道가 湯에게 善을 가르쳤다(桀惡其時也 湯善其時也 天道教桀於惡 天道教湯於善)(공사 3장 39절)

천하의 형세를 아는 자는 천하의 生氣를 받고 천하의 형세에 어두운 자는 死氣를 받는다 (知天下之勢者 有天下之生氣 暗天下之勢者 有天下之死氣)(행록 5장 38절)

사람이 사는 세상에 무엇이 재미인가. 衣와 食이라 말하고 衣食다음에 色이라 한다.그러므로 衣食色의 道에 이르러서는 각기 天地의 氣를 받는 것이다.惑世誣民하는 者나 남을 속여 物을 취하는 者도 역시 天地의 氣를 받는 것이다(人生世間 何滋味 曰衣 曰食 衣食然後 曰色也 故 至於衣食色之道 各受天地之氣也 惑世誣民者 欺人取物者 亦受天地之氣也)(교법 4장 47절)

위 예문은 천도의 작용으로 인계 탕의 선과 걸의 악이 나타났음과 人 各자가 천지 기의 작용속에서 삶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智者는 天地와 더불어 같아 春夏秋冬의 氣를 갖고 있다.每事를 任意대로 쓰니 이것을 일러 智慧勇力이라 한다. 大智는 天地와 더불어 같아 春夏秋冬의 氣를 갖는다.그 다음의 智者는 日月과 같아 弦望晦朔의 理致를 갖고 또 그 다음의 智者는 鬼神과 같아 吉凶禍福의 道를 갖고 있다.(智者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每事 任意用之 謂之智慧勇力 大智 與天地同 有春夏秋冬之氣 其次 與日月同 有弦望晦朔之理 又其次 與鬼神同 有吉凶禍福之道)(제생 43절)

위 내용에서 人界 智者중 大智를 가진 자는 天地와 같은 것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春夏秋冬의 기운을 소유해 만사를 임의대로 쓸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인간 완성의 단계인 大智를 소유한 사람도 천지 기의 영향과 밀접하

며 나아가 人의 智는 천지가 生人할 때 천지의 어떤 기를 받았느냐에 관계되는 일면을 시사하고 있다.

일이라는 것은 마땅히 旺盛함이 天地에 있다.반드시 人에게 있지 않다. 그러나 人이 없으면 天地도 없다.그러므로 天地는 人을 낳아 쓴다.사람으로 태어나 天地가 人을 쓰는 때에 參與치 않는다면 어찌 가히 人間의 삶이라 할 수 있겠는가(事之當旺在於天地 必不在人 然 無人 無天地 故 天地生人 用人 以人生 不參於天地用人之時 何可曰人生乎)(교법 3장 47절)

윗 구절에서 일이 마땅히 천지에 있지 반드시 人에게 있지 않다는 점과 천지가 人을 낳아 쓰는 본질을 알아 人은 天地가 人을 쓰는 때를 맞아 주체적 각성으로 삶을 영위해야 人生이라고 할 수 있음이 나타난다. 이것은 삼계의 모든 일이 근본적으로 신도의 작용아래 진행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위 내용은 天地用人的 때에 修心과 修身으로 人이 천지 성공하에 주어지는 복록과 수명을 받아야 되는 면까지 담고 있다.³⁴⁾

또 人세의 선의 포태, 불의 양생, 유의 육대와 후천에 새로이 출현될 진리의 冠旺이 각각 천지의 허무, 적멸, 이조, 도술의 기운하에 있게됨도 『전경』에서 찾을 수 있다.

천지의 허무기운을 받아 선이 포태하고 천지의 적멸기운을 받아 불이 양생하며 천지의 이조기운을 받아 유가 육대한다. 관왕(반서체) (부도생략) 도술 허무 적멸 이조 [受天地之虛無 仙之胞胎 受天地之寂滅 佛之養生 受天地之以詔 儒之浴帶 冠旺(反書體) (符圖省略) 兜率 虛無 寂滅 以詔] (교운 1장 66절, 현무경 24면)

특유의 역할을 맞춰 法術의 출현이 일정한 원리하에 특수한 神道의 작용을 따라 시운적으로 있게됨을 보인 것이다.

34)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다.(예시 30절)

이상에서 신도의 틀속에서 삼계의 일이 調化됨을 보았다. 이제 신도의 틀속에서 후천에 변화된 주요 상황인 成事在人에 따른 道通의 면을 보자.

2. 人尊과 成事在人

삼계의 운행은 시운에 따르는 것³⁵⁾으로 시기적으로 해원시대³⁶⁾, 신명시대³⁷⁾, 인존시대³⁸⁾임을 말한 부분에서 기존 질서와 다른 새 질서체계가 삼계에 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⁹⁾

그리고 천지가 성공하는 시운에 義人이 되어야 함을 밝힌 내용은 후천 시운으로의 변화속에서 人의 각성과 완성을 보인 것이다.

상제께서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西神이 사명하여 만유를 제재하므로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것이 곧 개벽이니라. 만물이 가을 바람에 따라 떨어지기도 하고 혹은 성숙도 되는 것과 같이 참된 자는 큰 열매를 얻고 그 수명이 길이 창성할 것이요. 거짓된 자는 말라 떨어져 길이 멸망하리라. 그러므로 신의 위엄을 떨쳐 불의를 숙청하기도 하며 혹은 인애를 베풀어 의로운 사람을 돕나니 복을 구하는 자와 삶을 구하는 자는 힘쓸 지어다.”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30절)

특히 주목되는 것은 神, 人의 관계와 관련 人尊사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35) 이후로는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예시 30절)

36) 지금은 해원시대니라. 양반을 찾아 반상의 구별을 가리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깎는 것과 같고 망하는 기운이 따르나니라.(교법 1장 9절)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교법 1장 67절) 이제 각 선령신들이 해원 시대를 맞이하여 그 선자 선손을 척신의 손에서 빼내어 덜미를 쳐 내세우나니 힘써 닦을 지어다.(교법 2장 14절) 이제 해원 시대를 당하여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나니 만일 너희들이 이 마음을 버리지 않으면 후천에 또 다시 악의 씨를 뿌리게 되니(교법 3장 15절)

37) 지금은 신명 시대니 삼가 힘써 닦고 죄를 짓지 말라. 새 기운이 돌아 닦칠 때에 신명들이 불칼을 들고 죄 지은 것을 밝히려 할 때에 죄 지은 자는 정신을 잃으리라.(교법 3장 5장)

38)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

39) 이밖에 현 시대를 말하는 것으로

선천 영웅시대는 죄로써 먹고 살았으나 후천 성인시대는 선으로써 먹고 살리니 죄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선으로써 먹고 사는 것이 장구하라. 이제 후천 중생으로 하여금 선으로써 먹고 살 도수를 짜 놓았도다.(교법 2장 55절) 원시반본하는 때라 혈통줄이 바로잡혀 환부역조와 환골하는 자는 다 죽으리라.(교법 3장 42절) 는 구절들이 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

천과 지를 높이던 선천시대가 있었다면 이제는 시운이 변하여 人을 존귀하게 여기는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천존과 지존은 천지의 신을 높여 숭배하는 것이다. 이제 인존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신과 人의 관계에 있어 삼계 운영의 주도층이 人 중심으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런데 인존시대의 도래는 지상에 천국을 이루는 일이 수반되어야 한다. 만약 지상에 상극과 원한이 잔존한다면 인간존귀의 이념이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후천세계의 구현은 인존의 세상을 구체화시키는 환경적 토대가 된다. 인존세상의 주변적 상황을 다음 구절에서 볼 수 있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예시 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예시 81절)

이 도삼이 어느날 동쪽으로 상제를 찾아 뵈니 상제께서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낱알이 세어보라” 하시므로 그는 범, 표범, 이리, 늑대로부터 모기, 이, 벼룩, 빈대에 이르기까지 세어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사람을 해치는 물건을 후천에는 다 없애리라”고 말씀하셨도다.(공사 3장 8절)

개혁을 통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모든 면에서 지상세계의 구조적 체계질서의 변화속에 인간의 정신적 완숙과 삼계의 개조를 통해 인간존귀의 장이 창출된다.

그리고 후천의 인존시대에서 특히 신과 人의 관계에서 주목될 점은 인간이 일을 성공시키는 구조로 삼계가 운행된다는 것이다. 천이 일을 성공시켜

오던 선천과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이제 人은 成事의 단계이고 신은 일을 모의해 추진하는 위치이다.

“선천에는 謀事가 在人하고 成事는 在天이라” 하였으되 이제는 모사는 재천하고 성사는 재인이니라.(교법 3장 35절)

선천에 신이 일을 이루던 상황에서 인간이 일을 이루는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일을 이룬다는 면에서 주도층이 인계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앞으로 인계에서 출현할 道通君子를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져가는 것임을 다음 구절에서 알 수 있다.

상제께서 태인 도창현에 있는 우물을 가리켜 “이것이 젓(乳)샘이라.”고 하시고 “도는 장차 금강산 일만 이천의 도통군자로 창성하리라. 그러나 후천의 도통군자에는 여자가 많으리라.” 하시고 “上有道昌 中有泰仁 下有 大覺” 이라고 말씀하셨도다.(예시 45절)

도가 後天에서 道通君子를 중심으로 신,인의 調和속에 造化를 하는 차원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지할 점은 앞장에서 살펴 보았듯이 成事が 人에게 있고 도통군자에 의해 도가 창성해 나간다는 인이 삼계 운영의 중추가 아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는 人이 성사를 하고 신이 모사를 하지만 삼계를 운용하는 중심은 上帝의 權能하에 神界 神道の 틀속에서 있게 되는 것이다.⁴⁰⁾

그러면 성사재인의 가능성이 되는 道通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도통은 상제께서 밝혀주는 것으로⁴¹⁾ 대두목을 통해 도통줄이 전해지

40)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 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닭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라는 내용에서 神道(도통신)에 입각 人의 心身수도의 결과가 도통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41)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 五백 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닭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재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

며⁴²⁾ 상제께서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道通은 先靈神과 儒佛仙 道通神과 관련을 맺고 있다.⁴³⁾

그리고 도통에 있어 人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은 도통하는 방법에 따라 心身을 닦는 것⁴⁴⁾이다.

결국 도통은 상제님과 대두목 그리고 神과의 관련성속에 各人이 心과 身을 닦은 대로 받는 것이다.

人이 心을 닦아 도통을 용사하는 차원은 삼단계로 설명된다. 그 삼단계는 ① 만사를 임의로 행하고(상등) ② 용사에 제한이 있으며(중등) ③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여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한다(하등)는 것이다.⁴⁵⁾ 특히 ①과 ②에서는 성사재인의 면이 나타난다.

그리고 위의 ①②③의 경우에서 上·中·下의 차이는 神의 응함에 관계하는 것임을 다음 구절들을 미루어 생각할 수 있다.

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42) 그리고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어찌 내가 홀로 도통을 맡아 행하리오”라고 상제께서 말씀하셨도다.(교운 1장 41절)

43) 공우가 어느날 상제를 찾아 뵈옵고 도통을 베풀어 주시기를 청하니라. 상제께서 이 청을 꾸짖고 가라사대 “각 姓의 선령신이 한 명씩 천상 공정에 참여하여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가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교운 1장 33절)

44) 이제 만일 한 사람에게 도통을 베풀면 모든 선령신들이 모여 편벽됨을 힐난하리라. 그러므로 나는 사정을 볼 수 없도다. 도통은 이후 가가 닦은 바에 따라 열리리라” 하셨도다.(교운 1장 33절)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교운 1장 34절)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 불 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닦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교운 1장 41절) “지난 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음으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고 하셨도다.(교운 1장 40절)

45)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 1장 34절)

사람마다 그 닦은 바와 기국에 따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감당할 신명의 호위를 받느니라. 남의 자격과 공부만 추앙하고 부러워하고 자기 일에 해태한 마음을 품으면 나의 신명이 그에게 옮겨가느니라.(교법 2장 17절)

상제께서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골을 찾아왔기에 별안간 꾸짖으시기를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느냐.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교법 1장 42절)

人的 공부와 心의 닦여진 정도의 기국을 따라 神이 응하여 운수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어떤 神이 人에 관계하느냐에 따라 도통의 차이가 있음을 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調和는 人이 心을 닦아 神과 調和속에 공존하는 人이 되는 것이며 造化는 人이 心을 써 人界일을 하거나 神을 용사시켜 天地의 일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神人調化로 요약된다.

神人調化는 人的 心身의 닦여진 정도에 따라 적절한 神이 調和를 이뤄 造化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때 造化의 면에 있어서는 人이 응한 神을 부러 권능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神人調化에서 心과 神의 대응, 人과 神의 관계를 알 수 있다. 人的 도통에 의해 神을 부러 나타나는 모든 것이 人的 心에 관계됨을 다음 글은 잘 보여준다.

天이 쓰는 것과 地가 쓰는 것 그리고 人이 쓰는 것이 통제가 마음에 있다. 내마음의 樞機와 門戶와 道路는 天地보다 더 크다.(天用地用人用 統在於心 吾心之樞機門戶道路 大於天地) (행록 4장 44절)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교법 2장 56절)

윗글은 人에게는 心이 있고 心을 통해 天·地·人 三界의 용사가 통제되며 이것은 心이 天·地·人에 존재하는 神들을 통제해 조화를 해나감을 시

사한다.

또한 神과 人의 관계에서 人에 속한 心이 天·地·人·神에 있어 주체적 중심으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천지의 중앙이 마음이다. 그러므로 동서남북에 있어 몸이 마음에 의거한다.(天地之中央 心也 故東西南北 身依於心) (교운 1장 66절, 현무경 3면)

그리고 이러한 心에 응하는 神에 善神과 惡神이 있으니 매사에 善한 것을 스승삼고 惡한 것을 고치는 修心의 중요성도 찾을 수 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귀신의 樞機이고 門戶이고 道路이다. 樞機를 열고 닫고 문호를 출입하고 도로를 왕래하는 신이 혹은 선하기도 하고 혹은 악하기도 하다. 선한 것을 스승삼고 악한 것은 고쳐라(心也者 鬼神之樞機也 門戶也道路也 開閉樞機 出入門戶 往來道路神 惑有善 惑有惡 善者師之 惡者改之) (행록 3장 44절)

위 내용에서 人의 道通은 人이 삼계내의 神을 움직여 造化를 이루는 차원임을 또한 알 수 있다.⁴⁶⁾

결국 神道の 기틀하에 人尊과 成事在人의 時運속에서 三界내에 道通君子의 출현이 있게 되며, 道通은 心身의 修養과 修鍊을 통해 神과의 調和하에 造化를 이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46) 또 공우를 데리고 정읍으로 향하실 때 상제께서 “마음으로 천문지리를 찾아보라” 하시기에 공우가 머리를 숙여서 풍운조화를 생각하니라. 상제께서 별안간 공우를 돌아보시며 “그릇되게 생각하고 있으니 다시 찾아라.” 이르시니 그는 놀라서 어찌 할 바를 모르다가 그릇되게 생각한 것을 뉘우치니라. 그는 다시 천문지리를 마음으로 찾다가 정읍에 이르니라. 이날 밤에 상제께서 눈비가 내리는 것을 내다 보시면서 공우에게 “너의 한 번 그릇된 생각으로써 천기가 한결 같지 못하다.”고 책망하셨도다. (공사 1장 33절) 상제께서 인사를 드리는 金 甲七에게 농사 형편을 물으시니 그는 “가뭄이 심하여 아직까지 모를 심지 못하여 민심이 매우 소란스럽나이다.”고 아뢰었도다. 상제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네가 비를 빌러 왔도다. 雨師를 너에게 붙여 보내리니 곧 돌아가되 도중에서 비가 내려도 몸을 피하지 말라”고 이르시니라. 갑철은 발병 때문에 과히 좋아하지 아니하니라. 상제께서 눈치를 차리시고 “사람을 구제함에 있어서 어찌 일각을 지체하리오” 하시고 가기를 독촉하시니라. 갑철이 서둘러 돌아가는 길에 원평에 이르러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도다. 잠깐사이에 하천이 창일하여 나무다리가 떠내려 가게 되니라. 행인들은 모두 단비라 일컬으면서 기뻐하는도다. 흠족한 비에 모두들 단숨에 모를 심었도다. (행록 4장 31절)

IV. 結語

本考는 先天문제의 해결과 後天仙境建設의 근간이 되는 宗旨 중 神人調化에 대해 成事在人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神人調化도 陰陽合德과 마찬가지로 음양원리하에 이루어지는 작용이다.

調化는 陰陽合德에 이어지는 神과 人의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로 음양론을 배경으로 설명되어진다.

調化는 음양과 관련이 있는 관계로 正陰正陽과 음양의 相生性 확보속에서 성사되는 원리이다. 정음정양과 음양상생은 음과 양이 調和되는 것이며 음양의 원리를 조율해 진행되는 造化를 실현케하는 근본 이념이다.

後天仙境建設을 위한 神과 人의 調化에서 調는 음양의 불균형과 상극성을 해소할 때 가능하며 그 해소는 三界公事속에서 解冤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를통해 化인 造化가 신계와 인계에서 있게 된다.

한편 神과 人의 造化작용은 神道를 근간으로 천지성공의 시운속에서 人尊 이념에 입각 成事를 인이 해나가게 된다. 이것은 선천에 神道下에 神이 成事하던 시운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成事在人을 구체화하는 것이 道通이다. 人界에서 출현할 道通君子를 중심으로 삼계내에서 萬事를 임의로 用之하는 일이 구현된다. 이것은 人의 心과 神이 관계되어 성사되는 것이다. 人은 心을 통해 天·地·人 三界의 중심으로서 관련 神을 운용해 造化를 해나간다.

결론적으로 神人調化는 後天시대 道通의 출현속에서 成事在人에 입각해 陰陽의 지배아래 구현되는 원리라는 일면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 要覽』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論集』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0
- 대순진리회 교무부, 『典經索引集』 대순진리회 출판부, 1992
- 『四書集註』
- 『周易』
- 『性理大全』
- 謝松齡, 김흥경 外 譯, 『음양오행이란 무엇인가?』 연암출판사, 1995
- 진고응, 최진석 外 譯,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예문서원, 1996
- 柳正東, 「程·朱의 太極論」 韓國東洋哲學會 編, 『東洋哲學의 本體論과 人性論』, 서울: 延世大學校 出版部, 1986
- 신태웅, 한국귀신연구, 도서출판 로고스, 1989
- 감탁, 증산교의 신관, 『증산교학』, 미래향문화, 1992
- 양계초 외, 김흥경 역, 『음양오행설의 연구』, 서울: 신진서원, 1993
- 리하르트 빌헬름, 진영준 역, 『주역강의』, 서울: 예문서원, 1996
- 후외노, 양재혁 역, 『중국철학사 上·下』, 1986
- 『大漢和辭典』
- 『유교대사전』 박영사
- 김형석 『세계철학대사전』 고려출판사
- 村山智順, 朝鮮의 鬼神, 조선총독부, 1929